제 11회 카이스트 문학상 시상식 열려

"창작 의욕에 비해 훈련이 부족한 점 아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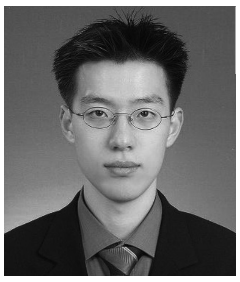
지난달 23일, 행정동에서 제 11회 카이스트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는 각 부문 수상자들과, 시정곤 본지 주간 교수, 인문사회과학부 이상경 교수, 장순흥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장 부총장은 "문학적인 능력은 곧 창의력으로 연결되는 만큼 우리 학교 학생들이 문학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며 "미래에는 스토리 텔링도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심사위원 대표로 참석한 이상경 교수는 "응모작들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창작 의욕이 고취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의욕에 비해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또한 내년부터는 과학평론 부문에도 활발한 성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카이스트문학상은 지난 95년도부터 시작된 이래로, 소설, 시, 수필, 과학평론 분야의 우수한 작품들을 배출해 왔다.

전준 기자
junejune1117@kaist.ac.kr



소설 부문 당선 '고백'
기계공학전공 학사과정 김디모데

제일 먼저 부족한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카이스트 문학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이고 매우 기쁩니다.

아직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은 나의 글을 좋게 봐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때때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펜을 잡고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맙니다.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 모두 언젠가는 그것들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설 부문 가작 '이 물 마셔도 되나요'
화학과 박사과정 양성호

언제부터인지 글을 잘 적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좋은 글을 적는답시고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철학이니 우주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보기도 했지만, 나 혼자만의 철학이고 나 혼자만의 우주였던 것 같아요. 어깨에 힘을 빼고 제가 적을 수 있는 주변 이야기를 적어 보았는데 좋게 봐 주신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동생이 맵다고 해도 물을 주지 않는 오빠가 있다면, 그 오빠는 왜 그런 걸까?" 라는 질문을 해 보았어요. "이상한 오빠네"정도의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죠. 이상하지 않은 오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주변에는 아직도 동생에게 물을 줄 수 없는 오빠가 있답니다. 우리의 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춥네요.

시 부문 가작 '9월 초 벌초'
화학과 학사과정 사석필

시가 처음으로 날 찾아왔을 때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쯤으로 기억한다. 그 무렵의 나는 스스로 토해내고 싶은 말들이 있었고 그것을 말로 쏟아내는 대신 펜을 드는 것을 택했다. 시를 통해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왜 시를 쓰냐고 묻는다면 나는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위해 시를 쓴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래, 간단히 말한다면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 써온 것이다. 하지만 이 상의 영광은 내가 아닌 특별히 고마운 몇몇에게 돌리고 싶다. 우선 부모님과 문학뿐만 아니라 삶의 일부분을 함께하는 '문학의 뜨락' 동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처음으로 시를 써보라고 권유했던 중학교 때 국어선생님, 오랜 문우들과 시집스폰서를 자처한 P군, 작품을 읽고 날카로운 비평을 날려준 L양 등 나에게 힘이 되어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제 내 미약한 재능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올해의 KAIST인 상'에 김재섭 교수

"자신을 믿으면 꿈에 가까워진다"

올해의 카이스트인 상에 생명과학과 김재섭 교수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지난 2일 시무식 때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네이쳐 제네틱스에 '파이렉시아'라는 뇌신경 보호유전자에 대해 게재했다. 뇌신경이 스트레스를 계속 많이 받으면 뇌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파이렉시아는 채널단백질을 만들어 뇌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약물등을 통해 뇌신경이 손상을 입는것을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의 생체시계유전자에 대한 논문이 지난 10월 뉴런에 발표되기도 했다. 김 교수가 발견한 유전자는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뇌신경세포들이 모두 같은 시간을 가르킬 수 있도록 조절하는 유전자이다.

김 교수는 학우들에게 "우리 학교 학생들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믿고 포기없이 꾸준히 해나가면 언젠가는 자신의 꿈에 훨씬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것이다"라며 학우들을 격려했다.

김권호 기자
bloodyred@kaist.ac.kr

15대 동연, 후보자 등록 없어 난관

14대 동연 회장단도 이미 와해

학부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장단의 공석 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지난달 9일 예정이던 제15대 동연 회장단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학우가 없어 벌어진 일이다. 동시에 14대 동연 회장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입대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동연의 회칙에는 회장과 부회장 자리가 모두 공석일 때 어떤 방식으로 단체를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현재 동연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홍용현(수학과 04) 학우를 회장으로 하고, 18대 총학생회 부회장 김정모(기계공학과 01) 학우와 20대 총학생회 회장단 등으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위 회장인 홍용현 학우는 다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동연 회장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비대위는 지난 14대 동연 회장단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비롯하여, 새내기 배움터의 동아리 소개 사업과 3월 말에 있을 동연 회장단 재선거 일을 맡게 된다.

13대 동연 회장 정현교(산업공학과 00) 학우는, "동아리 지원금 배치만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일인데, 그 일이 전혀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올해는 동아리방 재배치가 있는 해인데, 회장단직이 공석이 되어 걱정스럽다"며, "만약 3월 말 선거에서도 후보등록이 되지 않아 운영위원회만으로 동연이 꾸려지게 되면 학우들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박재인 기자
misenyang@kaist.ac.kr

"수업 갈까? 미리 배움터 갈까?"

미터 오늘부터… JAVA 수업과 시간 겹쳐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오늘부터 12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신입생을 위한 '2006 새내기 미리 배움터'(이하 미터)를 개최한다.

총학은 대자보와 강의실 직접 방문을 통해 신입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터와 신입생들의 JAVA 수업의 시간이 겹쳐 참가율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들의 JAVA 수업은 오후 9시 30분에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미터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06학번 입학 예정자인 김현정(장영실과학고) 군은 "미터에 참가하고 싶지만, JAVA 수업 때문에 못 갈 것 같다.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JAVA 때문에 못 간다고 했다"라고 신입생들의 반응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성림 총학 부회장은 "사전에 JAVA 수업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학 측은 시간을 변경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최 부회장은 "신입생들의 아침 수업도 고려해야 하므로 밤 늦게까지 미터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프로그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배들과의 대화, 공동체 놀이, 동아리 탐방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리 탐방은 총학에 신청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4개의 동아리만 총학에 참가 의사를 밝혔다.

시간은 지난해보다 짧아졌다. 총학은 미터를 3일 동안 오후 7시부터 시작해서 자정을 넘기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미터가 지루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최 부회장은 "3일 동안 짧게 진행되는 만큼 새내기들이 부담감 없이 참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승균 기자
DrRyu@kaist.ac.kr

원총 기혼자 학우 육아실태조사 발표

대학원생 기혼자학우의 육아실태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번 조사는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의 요구로 학생처가 지난달 1일 부터 9일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92명의 기혼 학우들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93%의 학우들이 양육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80%이상의 학우들이 많거나 매우 많다고 답했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이 178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나 백승기 원총회장은 "몇몇 고소득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평균은 이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다.

또한 백 회장은 "학교측이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학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측에 계속적인 요구를 할 것이다"며 학교측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권호 기자
bloodyred@kaist.ac.kr

과학문화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교육지원동 1층
전 화 : (042)869-5095
(042)867-2323
팩 스 : (042)867-2324
E-mail : yks@kaist.ac.kr